무역전쟁과 대두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확대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나 뚜렷한 승자는 없을 전망
중국은 관세 부과 시행일을 추후에 공표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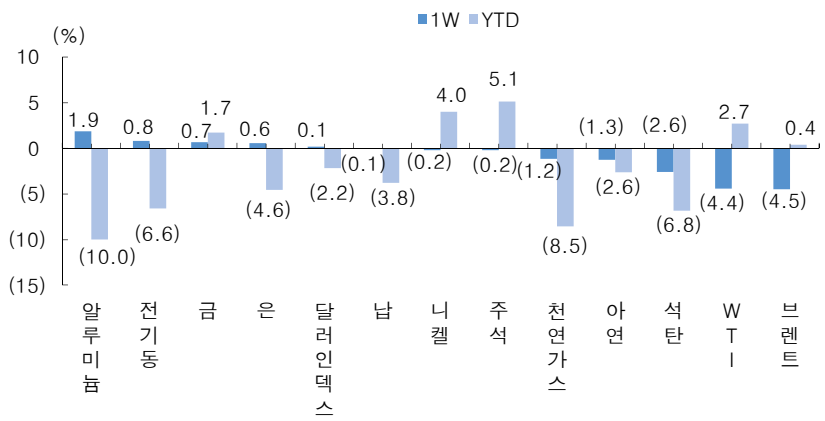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중국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대두 생산지역의 대부분이 트럼프 지지 지역이고 미국의 중국향 농산물 수출의 2/3가 대두인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산 대두 의존도가 1/3로 높은 편이고 특히 겨울에는 대부분 미국산 대두에 의존한다. 중국은 대두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대두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 비록 중국은 대두를 비롯한 106개 품목의 관세 부과 시행일은 추후 발표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유가와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원자재 가격은 품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유가와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1] 원자재 주간 수익률(4/2~4/6)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서태종
seotaejong@truefriend.com

높아지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시작으로 각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고 글로벌 경제가 급격하게 블록화되면서 대공황의 여파가 지속된 경험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은 결국 '레토릭(rhetoric)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

다만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중국은 돼지고기, 과일 등 약 12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4일에는 미국이 관세 부과 예정인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6일에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표 1>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현황

일시	내용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4월 2일	중국 재정부는 돼지고기, 과일 등 약 128개 품목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발표 및 발효
4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부과 예정인 1,300개 품목을 발표
4월 4일	중국은 관세 부과 예정인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 추가 발표. 시행일은 추후 공표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

자료: 주요 언론, 한국투자증권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으며 원자재 시장 역시 품목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유가와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했으며 금 가격은 상승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되고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원유나 비철금속 같은 품목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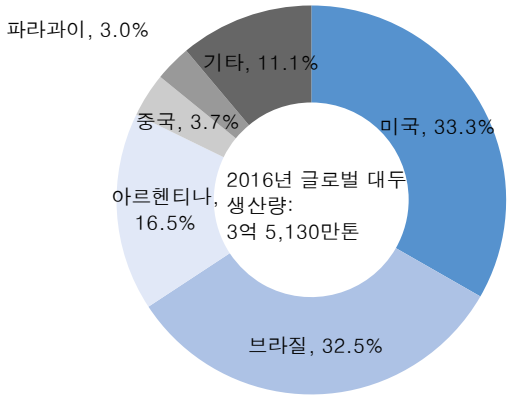
지난주 수요일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4% 이상 급락한 가운데 아연과 같은 비철금속의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지난주 가장 주목 받았던 원자재 중 하나는 대두(soybean)였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 부과 예정인 1,300개 품목을 공개한 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역시 106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하나가 대두였다.

대두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생산

대두는 흔히 콩이라고 통칭되기도 한다. 특히 단백질의 함유량이 육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밭의 고기'라고 불리고 있다. 주요 생산지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며 이 세 국가가 전 세계 대두 생산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그림 2]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세 국가가 전 세계 대두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



자료: USDA, 한국투자증권

미국의 대두 생산지역은 트럼프 지지 지역과 유사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대두 생산지역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10개 주 중에서 단 두 개 주만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힐러리 클린턴을 더 지지했다.

<표 2> 주요 대두 생산 지역 및 2016년 대선 및 하원의원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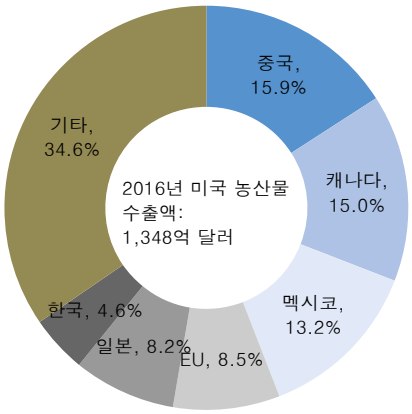
주(state)	대두 생산량 (천 부셸)	트럼프 지지율 (2016년 대선, %)	클린턴 지지율 (2016년 대선, %)	공화당 하원의원 (2016년 선거, 명)	민주당 하원의원 (2016년 선거, 명)
일리노이	592,950	38.8	55.8	7	11
아이오와	571,725	51.2	41.7	3	1
미네소타	393,750	44.9	46.4	3	5
인디애나	324,300	56.8	37.9	7	2
네브래스카	314,150	58.7	33.7	3	0
미주리	271,460	56.8	38.1	6	2
오하이오	263,780	51.7	43.6	12	4
사우스다코타	255,915	61.5	31.7	1	0
노스다코타	249,000	63.0	27.2	1	0
아칸소	145,750	60.6	33.7	4	0

자료: 주요 언론, 한국투자증권

미국의 중국향 농산물 수출의 2/3 이상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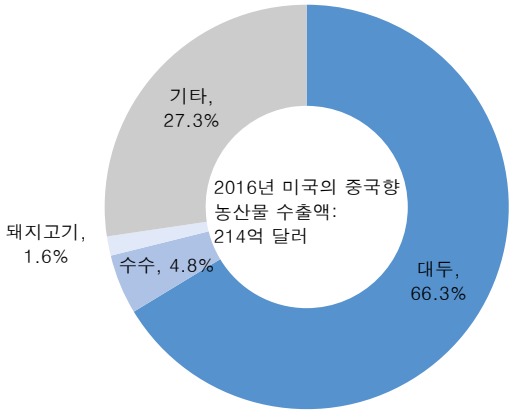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물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대두이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이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했던 지역이 바로 중국이며 중국향 농산물 수출의 2/3이상을 대두가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중국은 미국이 농산물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자료: USDA,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 2/3 이상이 대두



자료: USD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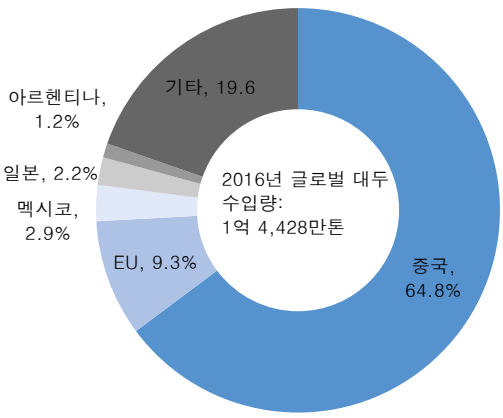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겨냥한 동시에 경제적 타격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파급력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남겨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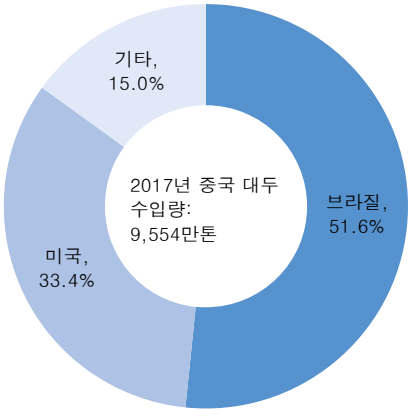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무역주의가 그러하듯 중국의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역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중국 역시 대두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대두 수입의 1/3을 미국에 의존했다.

[그림 5] 중국은 세계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자료: USDA,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중국은 대두 수입의 1/3을 미국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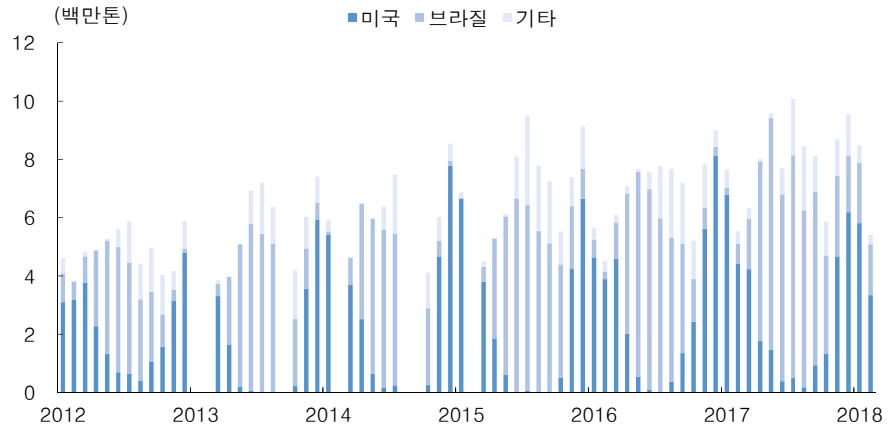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게다가 겨울에는 미국산 대두 외에는 대안이 크게 없음

게다가 중국의 대두 수입은 계절성을 보인다. 북반구에 위치한 중국과 미국이 겨울일 때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여름으로 대두를 재배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국이 겨울일 때 브라질보다는 이미 수확된 미국산 대두에 의존해야 한다. 실제로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에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림 7] 중국은 겨울에 주로 미국산 대두 수입에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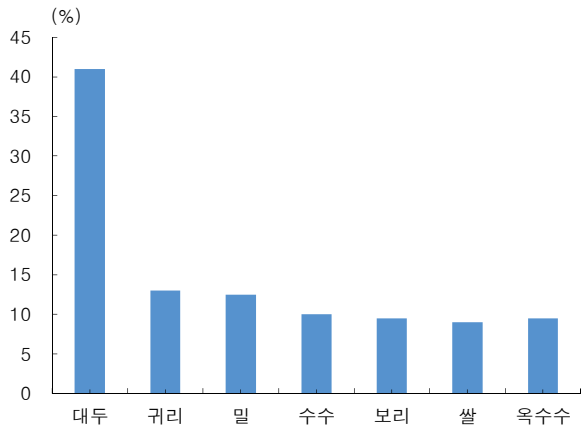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중국에서 대두는 주로 돼지 사료로 많이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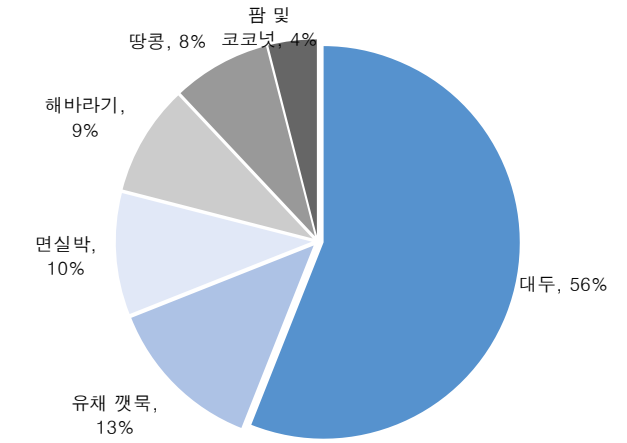
중국이 이처럼 대두를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이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두는 다른 농산품과는 다르게 단백질이 풍부해 돼지 사육에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만약 미국산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의 대두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돼지고기 등의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8] 농산물별 단백질 함량



자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사료 단백질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Novus International, FAOSTAT,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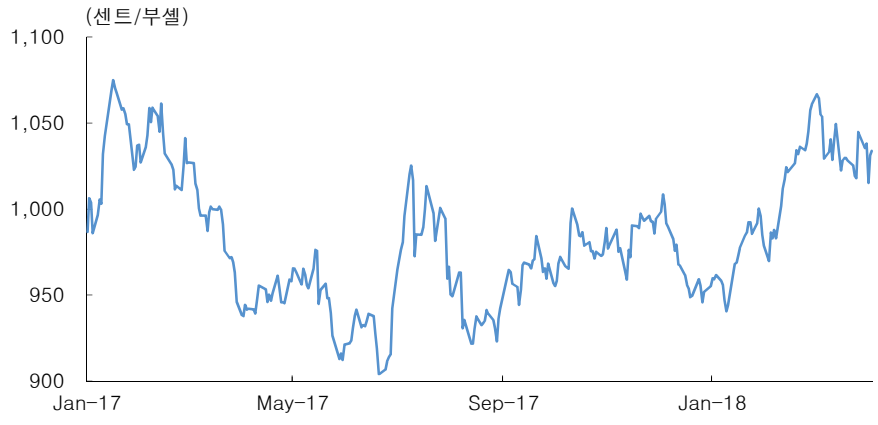
결국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는 중국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

중국 입장에서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동시에 미국산 대두 의존도가 높은 자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무역전쟁은 누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의 지도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시행일은 추후 발표하기로 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중국

실제로 중국은 4월 2일에 발표한 돼지고기 및 과일 등 128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발표 당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에 발표한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일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그림 10] 대두 가격은 중국의 관세 부과 전 수준을 거의 회복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아직 미국과 중국간 협상은 큰 진척이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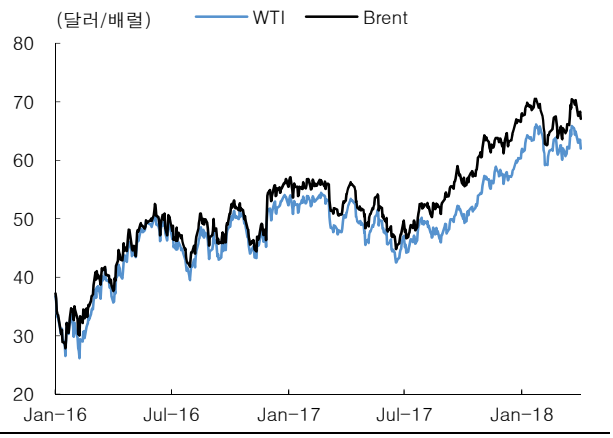
우리는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5월 이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월을 기다리는 이유: 시클리컬+소비재" 참조, 4/9). 4월 24일 애리조나 보궐 선거가 끝나고 대중 관세 부과안이 5월 말 여론 수렴,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포화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아직 협상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유가는 하락

예상과는 달리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지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러시아의 산유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유가는 하락했다. 지난주 EIA는 미국 원유 재고가 462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유 재고가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원유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동률 역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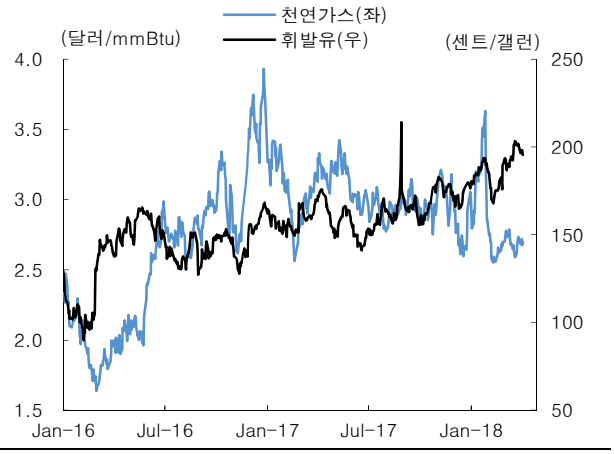
반면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유가는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조치에 맞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게다가 3월 러시아의 산유량이 1,097만 b/d로 산유량 상한선을 소폭 상회했고 이라크 정부가 2022년까지 650만 b/d로 생산가능규모를 늘리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 역시 유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림 11] WTI, Brent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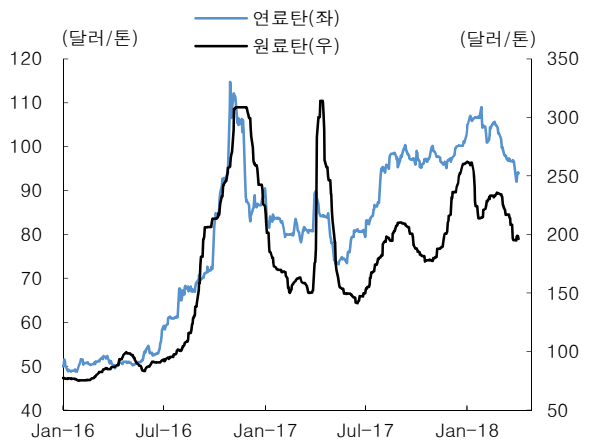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천연가스, 휘발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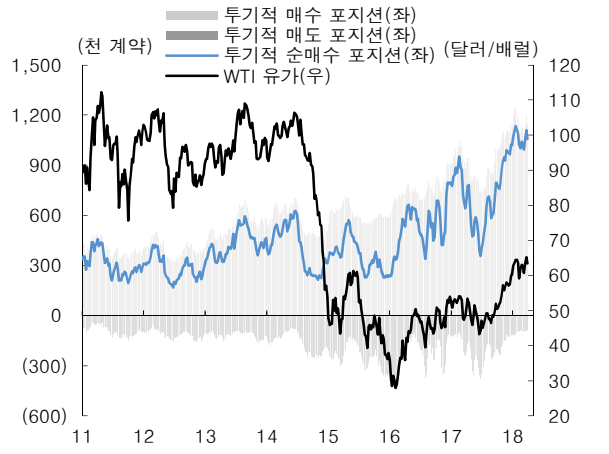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석탄 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WTI와 Brent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62만 배럴 감소했다. 휘발유(Motor Gasoline) 재고 역시 112만 배럴 감소했지만 증류유(Distillate Fuel Oil) 재고는 54만 배럴 증가했다. 가동률은 전주 대비 0.7%p 상승하며 93.0%를 기록했고 원유 생산은 1,046만 b/d로 전주 대비 3만 b/d 증가했다. 원유 수출은 218만 b/d로 전주 대비 60만 b/d 증가했다.

미국 원유 rig수는 지난 주 대비 11개 증가했다.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492개 증가했으며 전년도 수준과 비교시 136개 많은 수준이다.

<표 3> 미국 원유 재고 및 생산량

(단위: 천 배럴/일, %p)

구분	이번주 2018-03-30	지난주 2018-03-23	증감	4주 전 2018-03-02	증감	전년동기 2017-03-31	증감
원유 재고	425,332	429,949	(4,617)	425,906	(574)	535,543	(110,211)
휘발유 재고	238,477	239,593	(1,116)	251,029	(12,552)	239,103	(626)
증류유 재고	129,491	128,954	537	137,426	(7,935)	152,374	(22,883)
쿠싱지역 재고	34,893	31,227	3,666	28,180	6,713	69,144	(34,251)
원유 생산	10,460	10,433	27	10,369	91	9,199	1,261
원유 순수입	5,723	6,570	(847)	6,505	(782)	7,275	(1,552)
원유 수입	7,898	8,148	(250)	8,003	(105)	7,850	48
원유 수출	2,175	1,578	597	1,498	677	575	1,600
가동률	93.0	92.3	0.7	88.0	5.0	90.8	2.2

주: 증감은 이번 주 수치 대비 증감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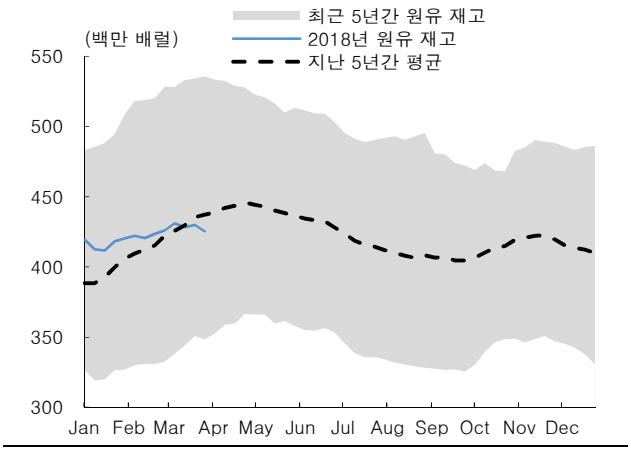
<표 4> 미국 rig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이번 주 2018-04-06	지난 주 2018-03-30	4주 전 2018-03-09	전년동기 2017-04-07	고점 2014-10-10	최근 저점 2016-05-27
원유 Rig	808	797	796	672	1,609	316
증감	-	11	12	136	(801)	492
가스 Rig	194	194	188	165	1,606	81
증감	-	0	6	29	(1,41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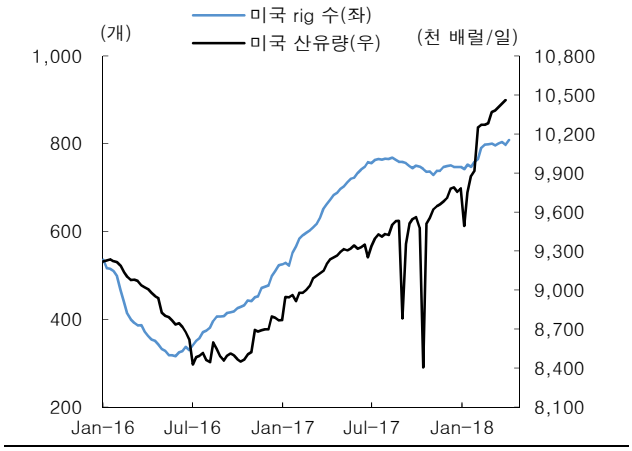
주: 증감은 이번 주 rig 수 대비 증감
자료: Baker Hughes,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미국 원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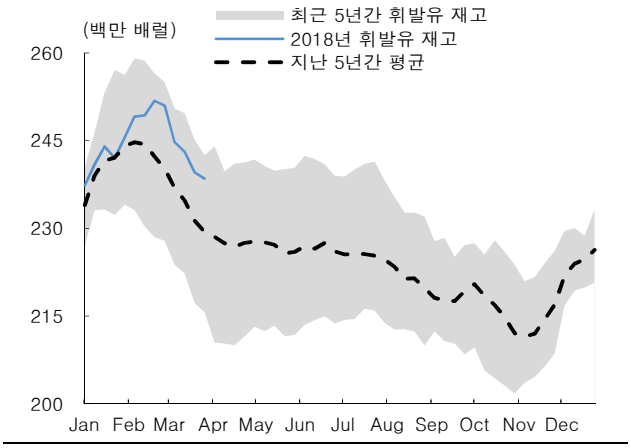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미국 산유량 및 rig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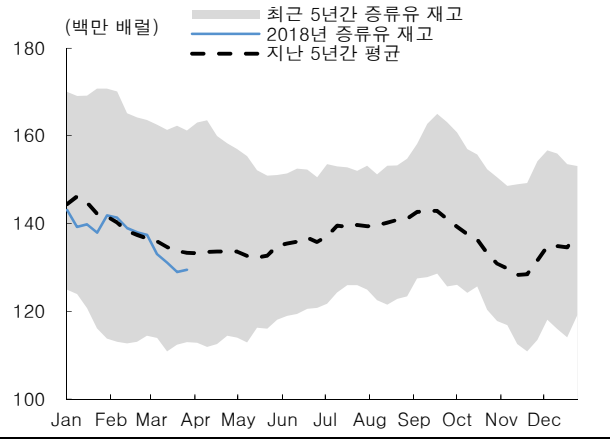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미국 휘발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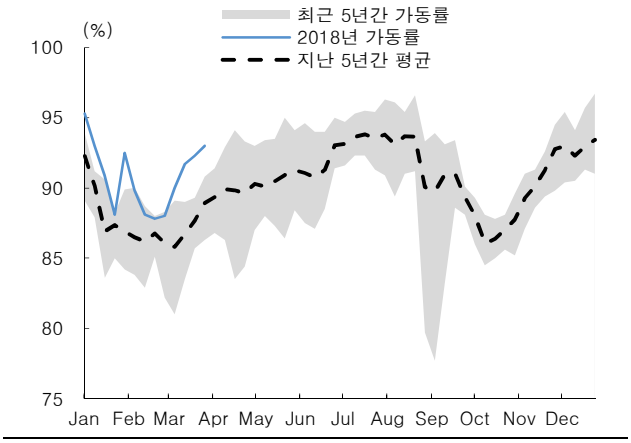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미국 증류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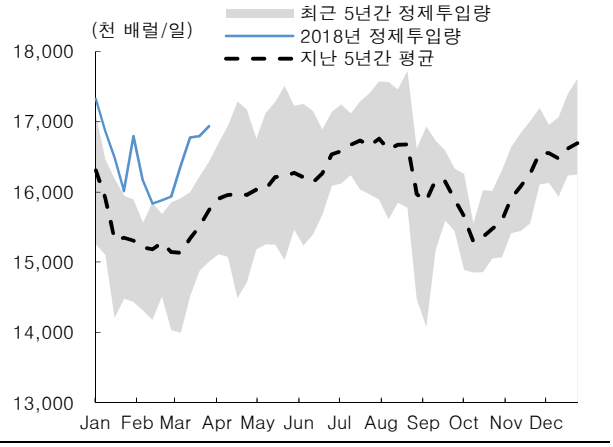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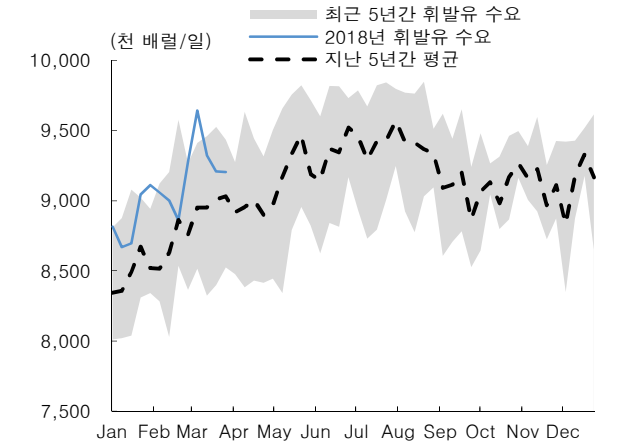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미국 정제투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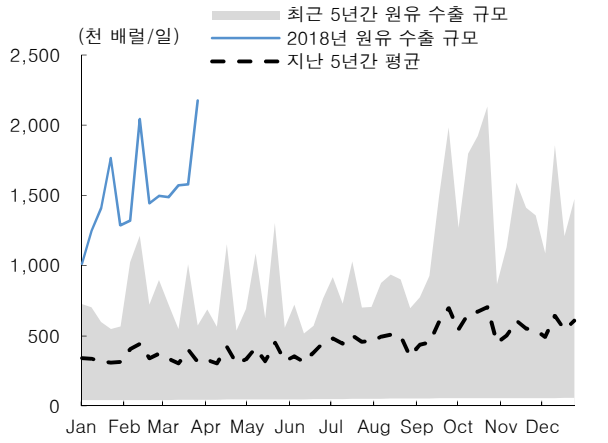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미국 휘발유 수요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미국 원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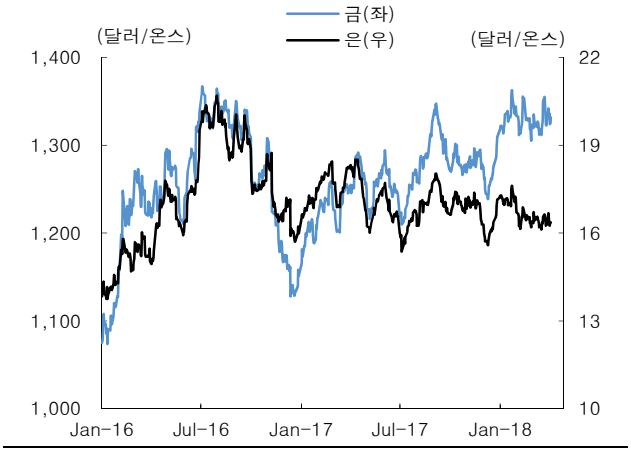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귀금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 가격은 상승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3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 가격은 상승했다. 금(+0.7%), 은(+0.6%)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팔라듐(-5.2%), 백금(-1.6%)는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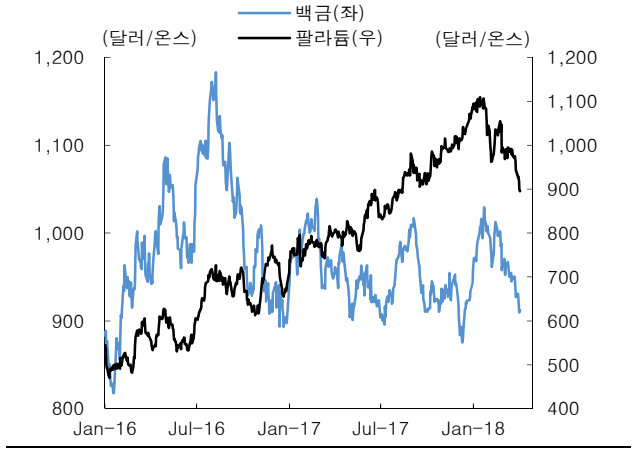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듯했으나 양국이 다시 경쟁적으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중국은 돼지고기, 과일 등 약 12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4일에는 미국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1,300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6일에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그림 23] 금,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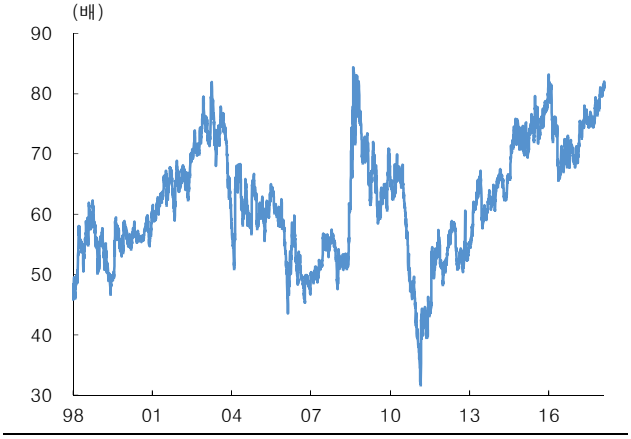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백금, 팔라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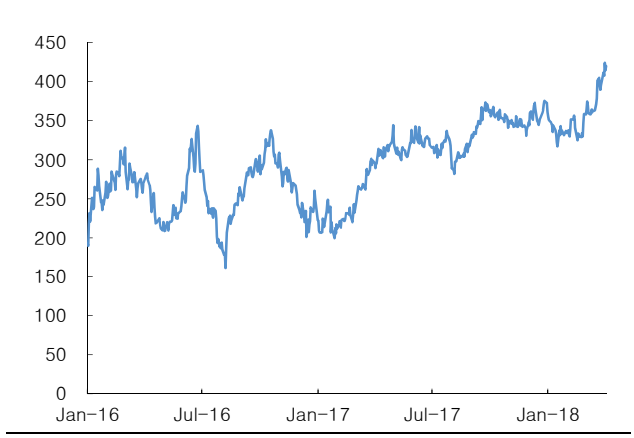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금/은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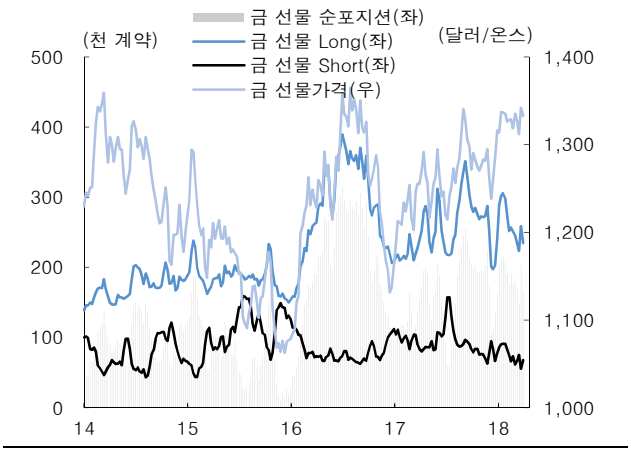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금-백금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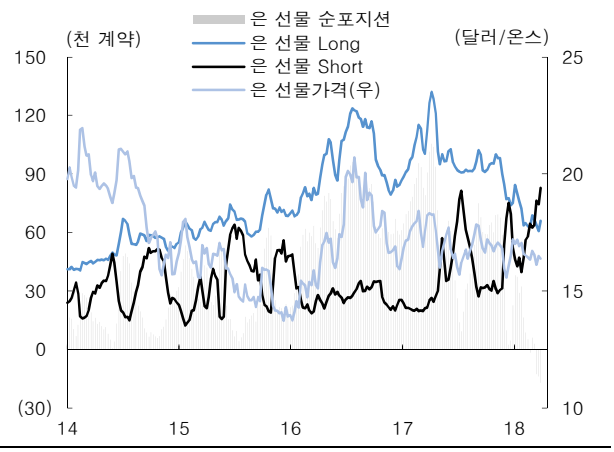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금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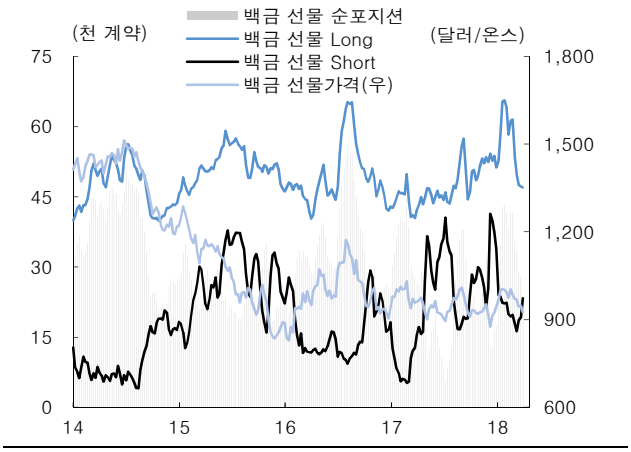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8] 은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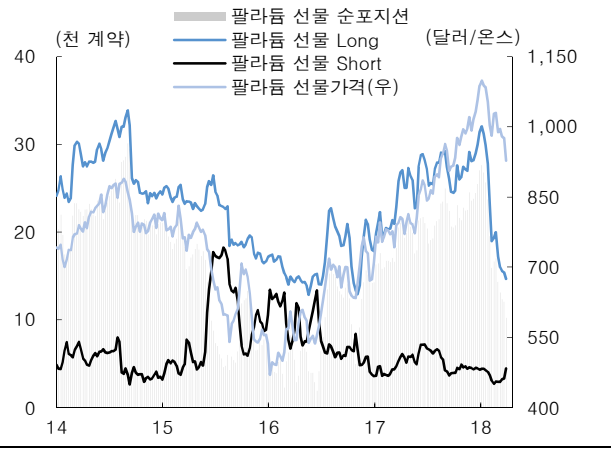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9] 백금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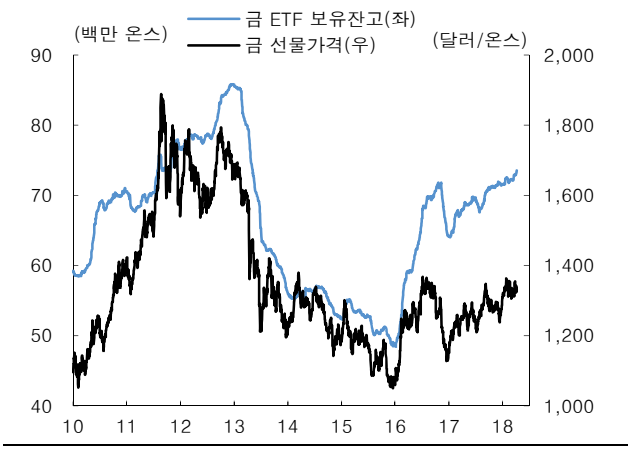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팔라듐 투기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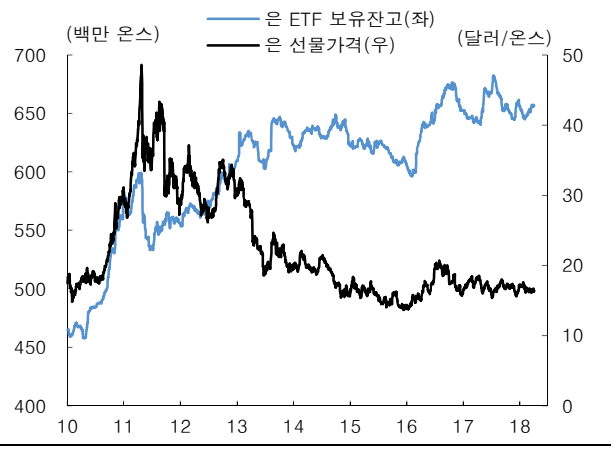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1] 금 ETF 금 보유량 및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2] 은 ETF 은 보유량 및 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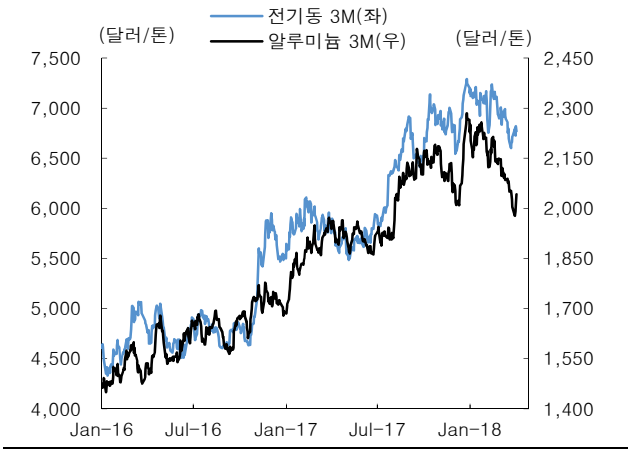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비철금속: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하락한 가운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아연(-1.3%), 주석(-0.2%), 니켈(-0.2%), 납(-0.1%)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알루미늄(+1.9%), 전기동(+0.8%)은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었다. 게다가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51.0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비철금속 수요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었다. 다만 전기동의 경우 최근 LME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Grasberg) 광산 인근의 마을을 반군으로부터 탈환하는 과정에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소폭 상승했다.

[그림 33] 전기동,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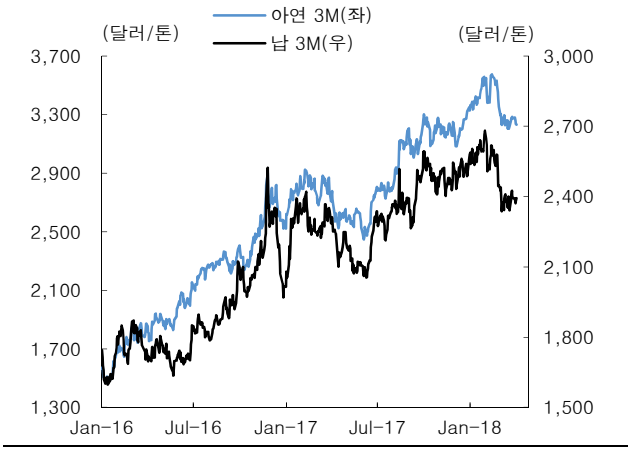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4] 니켈, 주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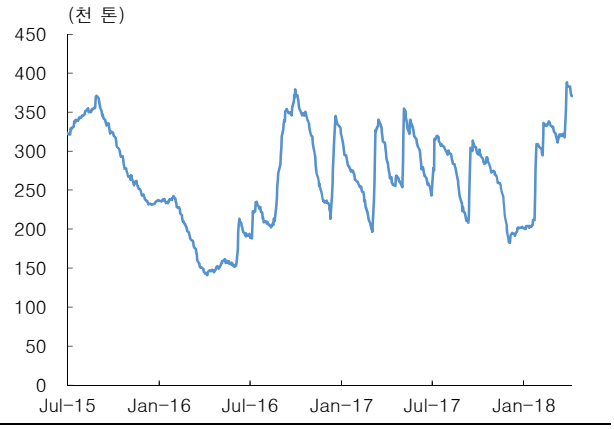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5] 아연, 납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6] LME 전기동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5> 주요 원자재 ETF

구분	ETF명	시총 (백만 달러)	일평균거래대금 (백만 달러)	종가 (달러)	1W (%)	1M (%)	3M (%)	YTD (%)	기초지수	운용보수 (%)	추적 오차	레버리지
원유	UNITED STATES OIL FUND LP	1,873	265	12.51	(4.4)	3.0	1.1	4.2	WTI	0.72	–	–
	IPATH S&P GSCI CRUDE OIL TR	550	12	6.89	(5.7)	3.9	1.5	5.4	SPGSCLTR	0.75	7.4	–
	UNITED STATES 12 MONTH OIL	80	1	21.89	(3.3)	3.6	1.9	4.6	WTI	0.79	–	–
	PROSHARES ULTRA BLOOMBERG	374	74	25.01	(9.1)	5.2	0.9	6.7	BCOMCL	0.95	26.6	Long X2
	UNITED STATES SHORT OIL FUND	11	0	54.02	4.4	(3.2)	(2.3)	(4.9)	WTI	0.75	–	Short X1
	PROSHARES ULTRASHORT BLOOM	219	41	21.8	9.3	(6.8)	(5.9)	(11.2)	BCOMCL	0.95	80.5	Short X2
	TIGER 원유선물(H)	86,207	972	4610	(1.6)	3.1	3.1	6.2	SPGSCLP	0.70	16.6	–
	TIGER 원유인버스선물(H)	8,619	191	10140	2.1	(3.8)	(4.7)	(7.7)	SPGSCLP	0.70	47.3	Short X1
천연가스	US NATURAL GAS FUND LP	351	107	22.24	(1.4)	(3.0)	(0.3)	(4.6)	Natural Gas	1.27	–	–
	VELOCITYSHARES 3X LG NAT GAS	468	186	55.62	(4.2)	(9.1)	(11.4)	(23.5)	SPGSNGP	1.65	68.4	Long X3
	VELOCITYSHARES 3X INVERSE NA	177	173	28.81	3.9	7.2	(6.7)	4.8	SPGSNGP	1.65	142.4	Short X3
석탄	VANECK VECTORS COAL ETF	90	2	15.47	(1.5)	(6.7)	(10.7)	(3.5)	MVKOLTR	0.59	5.0	–
에너지 기업	ENERGY SELECT SECTOR SPDR	17,361	1,138	67.35	(0.1)	0.3	(10.7)	(6.8)	IXETR	0.13	0.5	–
	VANGUARD ENERGY ETF	3,851	33	92.13	(0.3)	0.3	(10.9)	(6.9)	M5US5ENI	0.10	0.3	–
	SPDR S&P OIL & GAS EXP & PR	2,137	588	34.66	(1.6)	1.9	(10.6)	(6.8)	SPSIOPTR	0.35	0.6	–
	ISHARES U.S. ENERGY ETF	959	24	36.89	(0.2)	0.2	(10.8)	(7.0)	DJUSENT	0.43	0.5	–
	ISHARES GLOBAL ENERGY ETF	1,176	10	34.38	1.2	2.7	(7.0)	(3.3)	SPG12CEN	0.47	1.6	–
귀금속	POWERSHARES DB PREC METALS	178	1	38.79	0.4	0.3	(0.4)	0.8	DBCMYEPM	0.78	1.8	–
	ETFS PHYSICAL PRECIOUS METAL	382	2	64.17	(0.2)	(0.7)	(2.8)	(1.3)	GLTRI	0.60	6.2	–
금	SPDR GOLD SHARES	36,855	1,036	126.39	0.5	0.8	0.9	2.2	GOLDLNPM	0.40	3.9	–
	ISHARES GOLD TRUST	11,861	167	12.81	0.6	0.9	0.9	2.4	GOLDLNPM	0.25	3.9	–
	ETFS PHYSCL SWISS GOLD SHRS	1,160	7	128.94	0.5	0.8	0.9	2.2	GOLDLNPM	0.39	3.9	–
	VELOCITYSHARES 3X LONG GOLD	120	10	11.56	1.3	1.4	0.3	3.8	SPGSGCP	1.35	22.1	Long X3
	KODEX 골드선물(H)	54,285	630	9870	(0.8)	0.1	0.0	1.9	SPGSGCTR	0.68	6.6	–
금광업체	VANECK VECTORS GOLD MINERS	8,309	951	22.07	0.4	1.9	(5.8)	(5.0)	GDMNTR	0.52	4.0	–
	DIREXION DAILY GOLD MINERS	1,313	186	24.71	1.3	5.6	(23.1)	(22.1)	GDM	0.95	45.7	Long X3
	DIRXN DAILY JR BULL GOLD 3X	786	192	13.83	2.0	3.9	(20.5)	(22.1)	MVGDXJTR	0.95	49.7	Long X3
	DIREXION DAILY GOLD MINERS	186	128	25.37	(1.5)	(7.4)	10.2	7.0	GDM	0.95	89.6	Short X3
은	ISHARES SILVER TRUST	5,244	134	15.43	0.1	(0.8)	(4.5)	(3.5)	SLVRLN	0.50	10.5	–
	ETFS PHYSICAL SILVER SHARES	333	3	15.95	0.1	(0.8)	(4.4)	(3.5)	SLVRLN	0.30	10.5	–
	PROSHARES ULTRA SILVER	224	5	31.16	0.2	(1.8)	(9.8)	(7.9)	SLVRLN	0.95	24.2	Long X2
	VELOCITYSHARES 3X LNG SILVER	271	30	9.91	0.0	(3.5)	(16.8)	(14.6)	SPGSSIP	1.65	36.7	Long X3
	KODEX 은선물(H)	25,908	175	3810	(1.0)	(1.2)	(5.2)	(3.1)	SPGSSITR	0.68	10.2	–
은광업체	GLOBAL X SILVER MINERS ETF	410	4	30.35	(1.2)	0.4	(6.8)	(7.0)	SOLGLOSI	0.65	2.7	–
백금	ETFS PHYSICAL PLATINUM SHRS	519	4	87.15	(1.7)	(3.8)	(6.0)	(1.5)	PLTMLNPM	0.60	6.8	–
팔라듐	ETFS PHYSICAL PALLADIUM SHAR	197	3	85.85	(5.2)	(7.5)	(18.2)	(15.5)	PLDMLNPM	0.60	11.1	–
비철금속	POWERSHARES DB BASE METALS	329	5	18.29	0.5	(1.1)	(4.4)	(5.8)	DBCMYEIM	0.82	2.2	–
전기동	IPATH BLOOMBERG COPPER SUBIN	55	2	34.24	0.4	(1.4)	(7.0)	(8.8)	BCOMHGTR	0.75	2.3	–
	TIGER 구리실물	8,066	27	6865	1.0	(2.6)	(6.0)	(6.7)	SPGSCO	0.85	8.2	–
	KODEX 구리선물(H)	5,625	63	6250	(0.2)	(3.0)	(6.3)	(8.6)	SPGCHGTR	0.68	9.8	–
니켈	IPATH BLOOMBERG NICKEL SUBIN	14	0	16.15	(0.8)	0.7	6.1	4.9	BCOMNITR	0.75	7.4	–

주: TIGER, KODEX ETF의 시총, 일평균거래대금 단위는 백만원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